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율화동지의 가족과  
외국의 단체,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사 장율화동지의 가족, 김정은친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일조후 히로시마현민의 회와 나이제리아

『경애하는 김정은친수각하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8월

등의 글발이 써여져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주사기 광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주사기 광장을

조선의 의료기구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광장을 세세하게 주관

주시기 광장으로 전변시킬 때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 방송, 민주통고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친수각하께 영광을 드립니다』는 책 한부록밥서 험성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광재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덜란드 텔레비전 『네델 뮤비』, 대우산제스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3호 [루계 제25426호] 주제105 (2016)년 10월 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

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세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의 협회와 중국지역민족위원회 통일

자진거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

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만나기 위해 앞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친수님께 살가 이 평지를 드립니다.



총정의 200일 전투에서 전형당위들의 모범을 따와 배우자

# 조국은 잊지 않으리, 용감한 바다정복자들의 위훈을!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을 완공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

내 조국의 세해진역에서 장례한 승전포성이 머물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진설 완공!

당의 철도호소를 높이 불고 활복도 북부에 복구전선에 힘과 밝기를 기적적 승리를 위한 대적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속에 서해의 만년제방우에서 울려울 승리의 만세소리는 천안군민을 끌어들이 홍분시키며 신실과 용기로 떠파져주고 있다.

이 푸사와 환봉됨으로써 수원정보의 간세가 머물렀고 새로운 물환선도로가 형성되었으며 주변 동경지역에서 해일과 짐풀에 의한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우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서류지에서 양어, 양식을 대체적으로 하여 인민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안선의 키이가 줄어들어 국토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 역전만번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자

대계도!

오늘 조국땅 그 어더서나 세차게 나붓기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위대한 구호와 더불어 온 세상이 다 아는 대계도 거식.

그 위대한 창작조의 주인공들이 오늘 또다시 홍건도기적을 창조하였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 진설은 동립군 앙산리의 폐봉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큰순례도와 대성포도, 작은손포도와 3개 섬을 편집하고 선천군 석화리의 소갈봉까지 근 40리의 제방을 살아 수원정보의 새생을 열어내야 하는 거창한 대사업으로 조건을 뛰어넘어가고 마감마이구간은 절경 가까이다.

바로 그때 뚱박의 난관이 마도처럼 내닫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무른 강탕충에 의한 암출현상으로 하루밤사이에 80m 구간의 방조제가 무성 내려앉았던 것이다. 처녀들은 밤을 통동 골렸고 억대 우강은 사나이들이 조각을 입술에서 신을 소리로 새어나왔다.

처음 걱정은 시련은 아니었다. 하지만 퍼와 텁을 바치며 일세운 수심마의 방조제가 숭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순간에 무너져내렸을 때, 파란 그들의 심정이 어떠겠겠는가. 쌓으면 무너져내려있고 다시 쌓으면 또 뭉쳐내려가는 그림이다...

성설과는 달리 광활한 남다우에 한m한m 제방을 살아나가는 간석지건설에서 2년을 일당건적이 타리며 만년제방우에 대한 기적이다. 무슨 힘으로 서해의 용사들은 보통의 담백과 배짱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비약의 목표로 내세웠으며 어떤 과감한 투쟁으로 기어이 승전포성을 헤치고 암살하는가.

그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자애인 로령영 용 풍랑무는 대로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때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체도기

적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위대한 구호를 안겨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믿음을 죽으나사나 죽여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알고 말았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과 같은 밤에 규모의 자연계사업과 김일성동지의 힘과 함께 대체도기적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위대한 구호를 안겨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믿음을 죽으나사나 죽여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알고 말았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제방우로

제방을 다시 쌓고 암출을 막았다. 일주일째로

방조제였다.

2015년 10월 7일, 드디어 날바다의

마지막수통을 조이는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집되었다. 그렇게도 걸길이 남았던 날

바다를 걸들이고 그들은 당일에 다진 맹세

를 기어이 지켜냈다.

그들은 4년새 일을 이렇게 쌌다. 충정

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목표도 이렇

게 앞당겨 절명하고 1단계 진설완공의 날

도 이렇게 앞당겨 당시에 만년제방

을 당당히 청결하게 했던 것이다.

한국의 창조자들은 그 힘으로 10월 27일

2012년 4월 27일

파산간석지 2계단 진설을 완공한 기쁨

을 안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도동계급이

임무를 험하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과 믿음을 담아

보내주신 친필서한!

그들의 마음은 이 순간도 위대한 장군님

의 부강조국건설 님께 헌신을

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세월을

한 줄이는 방도를 선택할것인가.

첫번째 방안대로 최종마감막이 600m

구간에 200m의 폭으로 바닥보강을 진행

한다면 안정성은 확고히 달보이된다.

하지만 풍랑과 물결을 맞아온

간석지건설자들은 예상과는 달리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그들은 험난한 한주일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을 쌓아나가는 간석지건설

자들은 제방을 확장하는 힘을 더해내고 있다.



# 애국의 열정 다 바쳐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오자

## 백두산 기슭에 삼지연 군에서

삼지연 군이 대중체육열풍으로 새롭게 풍겼고 있다. 그 어디에 가보아도 나날이 놀아지는 대중체육열의 속에 척박한 경영과 행정에 넘쳐 강성군 영향 조국의 빠지를 알당겨가는 이곳 인민들의 활력에 넘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풍기는 나라로 꾸며져 광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고생과 헌신을 끊임없이 푸어온다.』

백두산 편에 차님처럼 활동 척박한 청년들의 혁명적 땀과 열성이 삼지연 군민들의 실장을 불韧이처럼 더욱 달구어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장군에서 살며 일하는 한없는 궁지와 자행을 알고 대중체육사업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설 것의 드리운 군산원 경영소, 도래농장, 군도시 건설사업소, 군청 빙장과 공장을 비롯한 군의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대체로 대중체육사업을 위한 두정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특색있는 경기장건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온기 펼쳐나내며 봄기슭의 냉대한 무지에 견딜하고 있는 경기장은 건축형식이 독특하고 200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촉구, 풍구, 배구, 탁상경기 등

경기조직요강을 통해 본 드높은 열의

## 평양고무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물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경양고무공장 직원들은 방에 들어섰을 때 맥상우에게 놀라워하는 체육경기조직요강들이 눈에 띄었다.

최근간 국가적인 기념일들 때 매체 체육장을 맞으며 그리고 매월 체육의 날들에 공장적으로 진행한 체육경기들과 관련한 조직요강들이었다.

먼저 2013년의 체육열을 맞으며 진행한 체육경기조직요강을 절쳐보니 조구성으로부터 경기진행방법, 종목별 경기집행자 및 심판원 그리고 시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다음 직원들은 윤리의 체육장을 맞으며 진행하고 있는 경기조직요강을 받아든 우리 3년전의 것보다 꽤 뛰어운데 대해 놀랐다. 아니나다를 끊어 재구성되고 세분화되어 있는것이었다.

예를 들어 몇 해전의 요강과는 달리 경기시작전에 체육기자재들의 구비정형까지 따져보고 점수를 더해주거나 식같다는 조

## 미로유희시설이 새로 꾸려져 운영 시작

### 를 라인 민 유 원 지 에 서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에 떠밀려 흘러온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일선민족인민유원지에 미로유희시설이 새로 꾸려져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첫 갈려서 빠져나오기 힘든 길을 미로라고 한다.

미로유희는 어려움의 생활리라니 구조물로 둘러싸인 천안에 어려운 깊은 힘을 만들어놓고 입구로 들어가 백화쪽의 출구를 찾아나가는 유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문화를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

적수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에 힘 있는 담당자로 기우며 인민들에게 유쾌하고 분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 해전국과 봄과 함께 미로유희시설이 미로유희시설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세이언은 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함께 미로유희시설이 풍부하게 일떠세워 놓은 문화

## 체육 절을 맞으며 일어번지는 체육 열풍

### 이 뿐 되고 있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꾸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만난 군체육지도위원 회임군인 평생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체육사

업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삼지연 군의 당원들과 군로

자들이 백두산 산악명전지역에서

는 금지의 자부심을 알고 전

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의 말씀은 군일군들과 당원

군로자들의 영원한 삶과 두

생의 푸어우기 위한 대국 사업입니다.』

백두산 편에 차님처럼 활동

하는 척박한 청년들의 혁명적 땀과 열성이 삼지연 군민들의 실장을 불韧이처럼 더욱 더 끌어당겨가는 듯하다.

체육경기장을 찾은 군민들은

체육 열풍을 풍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경기장을 찾은 군민들은

체육 열풍을 풍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 열풍

# 극악한 악담질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는 희세의 매국역적 박근혜의 만고죄상을 고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대통령이 저승길인 박근혜역도가  
자기의 가면을 벗지도 모르고 구린  
내나는 반공화국악당으로 여론을 계  
속 어지럽히며 최후방악하고 있다.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  
식」이라는에서 우리 국민과 체계  
를 악랄하게 훔쳤으며 대검찰부를 고  
위한 박근혜년의 무례무도한 주제는  
온 겨레의 지 속은 저주와 규탄을 불  
러워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역도년의 망발  
을 두고 「대안히 위험한 발상」, 「입  
밖에 없는 투지, 무능, 무책임한 화물  
이», 「내세에 대한 임박음운」 등  
비단과 조소가 비발되고 있다.

##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역의 나발통

박근혜역도는 절친첩남부터 오늘  
까지 동족에 대한 명예인 거부감과  
여러분은 「제제통일」상에서 서로를  
해려워했던 비방증상을 통해 무남관  
제를 죄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조  
선반도에서 길장을 풀고자 적  
회시킨 천벌맞을 유물이다.

박근혜역도의 이러한 대결분식은  
「대통령」성거리를 쓰고 「취임식」이  
라는 데 나타나 「북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노무현, 고립  
자초했다」, 「나니 하면서 통증을 치우  
하는 망발을 늘어놓은데서 남달이  
드리겠다」.

역도는 2013년 3월 27일 피폐통  
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에서 「북의 변화를 미 нару기 키릴 수  
없다」, 「북이 변화를 원수밖에  
없는 행정을 세계 사회와 함께 만  
들어야 한다」, 「나니 하며 「북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라」고 수하를 개별사를  
부여하였다. 「조선일보」 2013. 3. 27.,  
『뉴시스』 2013. 3. 27.)

박근혜역도는 지난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정  
치」, 「주민들의 삶」이니 뛰어 하면서  
서 감히 우리 국민과 체계를 걸고  
드는 망동을 부쳤으며 6월 30일에는  
는 위임 후 청탁으로 자주통일과 평  
화번영의 세 국면을 열어나가며 대  
하여 호소하였다 때 박근혜역도의 배  
당원과 함께 망동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에게 힘을 주고자 기쁨을 토하  
였다. (『뉴스1』 2015. 5. 26. 『통아  
일보』 2015. 7. 13.)

박근혜역도가 얼마나 새 상 육기는  
습다며 할지, 그 나이 치명도록 제고  
도 씻울 줄 모르는 미시미 같은 네인  
가 하는 것은 해외행각마다 치마바  
람을 입구면서 외세에 반공화국에 걸  
봉조를 구걸하고 동족을 미친가마냥  
풀어들으며 즐아웃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014년 1월 20일 스위스 대통령  
을 만난 역도는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되어 간 나무가 101번에  
에 드디어 쓰러지게 될 때 100번의  
노력을 투지한 것이다」, 「101번의  
노력을 하 이어갈것으로  
로 본다」, 「고 끄고 끄면서  
우리의 자위적핵위력제재를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뉴스1』 2014. 1. 24.)

특히 역도는 2014년 3월 도이칠  
란드를 행각하면서 「빼울것이 많다」,  
「도끼로 떠르고 싶다」, 「나니 하  
며 「도이칠란드통일」을 본분 「드레  
즈엔설언」이라는 것을 세 창해 나섰  
다. (『파이낸셜뉴스』 2014. 3. 27.,  
『조선일보』 2014. 3. 29.)

박근혜년은 2016년 6월 22일  
민주평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들과의 「통일대회」와 8월 24일 피폐  
전방부에 대한 현장방문이 되는  
서 「한국현장」과 「지역」, 「미상  
식제의 사설정책제재」에 뛰어 하면서  
우리의 정부를 칭찬하였다. (『뉴스1』  
2016. 6. 22., 『연합뉴스』 2016. 8. 24.)

동족대결의식의 꿀수에 들어  
한 대결왕자인 박근혜역도의 대강봉  
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전도같은  
것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민족화폐  
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  
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맹방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박근혜역도의 주

남조선의 러타 통치배들이고 반공  
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며 도발적인  
악당을 내뱉지 않은자는 없었지만 박  
근혜역도 눈이 깨어있지 않은 바  
통족을 모해하고 대검찰부를 선동하는  
악워너는 일방아침에 환장하여 돌아치  
는 천하의 악당은 일찍 기 없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동족대결의식  
이 꿀수에 까지 불어찬 박근혜역도  
는 청와대에 파리를 끌고왔고 독을  
나를 끌고, 반공화국 대결악당을 헤쳐  
나를 끌고, 대결과 전쟁의 화물들이 끌어  
고 미쳐 날뛰 추악한 죄악을 만천하  
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책서를 말  
로 한다.

정성이다. »느니 뛰어 하면서 북남한  
제개선을 위한 우리의 중대조치들을  
무더 대고 부정하고 험한 어려웠  
다. (『뉴시스』 2016. 8. 24., 『뉴  
시스』 2016. 9. 9.)

서울에 돌아와서는 보집도 물어놓

기 전에 「보상평정회」라는 것  
을 긴급히 소집하고 「북이 우리와  
국제 사회를 폴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의 위협은  
우리에게 금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아부지 기를 치면서 「북  
핵대응이 완전히 끌려야 한다」. »고  
개거울을 고발하고 고였다. (『뉴시스』  
2016. 9. 9.)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질겁한 역도  
의 허스퍼리적인 화중은 우리의  
병진로선을 집요하게 시비증상하고  
있는 데서 뛰어 뛰어 찾을 수 있다.  
천하의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듯이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북남관계를 환경히 절단되면서  
더욱 국도에 달하였다.

천하의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하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하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하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니 뛰어 둘에 당시 않는  
이로도 알았던 게운데 꺼리지 않을  
이 내내 「국가안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 »느니 내외의 비단과  
조소를 차이내았다. (『뉴시스』  
2013. 3. 8., 5. 15.)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근  
원도 모르고 우리가 해 빼를 보유하  
게 되었는 데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  
도 없는 박근혜역도는 동방의 혁강  
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위를 쇠여보려고 갖은 악랄한 행  
적을 다이며 험준한 북남한 관계를  
제거해나온 북남한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제3회 북식당총연합원들의  
집단발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허파  
가 나나고 있다. »고 하면서 미주상  
전과 함께 빌려놓은 유엔 「제제」  
을 「효과」가 있는 들판을 악마구나질을  
해냈다. (『뉴시스』 2016. 4. 18.)

지어 역도는 「이전 쏘련이 핵무  
기자 모자라서 무너져버렸다」이다.  
느니 「투기만으로는 나빠를 지킬수  
없다. »느